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미 증시, 반도체주 장중 반등 속 여타 테크주 순환매 전개 효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9일(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마이크론(+1.1%), 샌디스크(-1.9%) 등 반도체주들의 동반 급락 여파로 지수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반도체주들의 장중 반등 소식, 다우에 편입된 알파벳(+4.8%) 포함 테슬라(+8.5%), 메타(+2.2%), 엔비디아(+1.3%) 등 여타 M7 및 테크주로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1.2%, 나스닥 +2.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8%).

지난주 후반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들의 일중 변동성이 높아진 모습. 이들 주식으로의 쉐어 리스크 심화에 대한 부담 누적이 일시적인 수급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의 CXMT 메모리 사용 요청, 오픈 AI 상장 연기, 미국 소비자들의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디램 공급 제한 및 가격 담합 via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등이 이들 주식의 변동성을 한 층 키우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전일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여타 업종 주가는 견조했다는 점이 특징적. 6월 말로 갈수록 매크로 부담이 낮아지면서 증시 위험선호심리를 유지시켜준 덕분이라고 판단. 또 AI 수요 호조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세 지속, 장기공급계약 효과 등 반도체주들의 펀더멘털에는 아직까지 큰 이상신호가 없다는 점을 감안 시, 증시 전반에 걸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점을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 금요일 국내외 반도체주 급락 여진 속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반도체 이외 이차전지, 바이오, 전력기기, 코스닥 등 여타 업종 및 시장으로 순환매가 출현하면서 코스피는 소폭 약세, 코스닥은 8%대 급등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8.1%).

금일에는 미국 반도체주들의 장중 급반등 성공(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중 -3% -> 증가 +3%대), 미국 10년물 금리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이다. 다만, 6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분기 및 반기말 리밸런싱 여파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주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가 증시 상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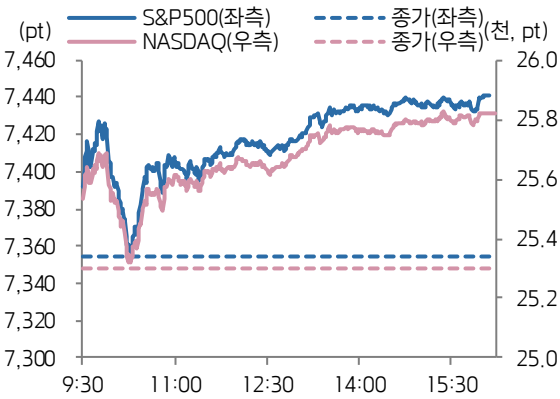
한편,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약세 -> 여타 업종 약세 -> 증시 급락”이 아니라 “반도체 약세 -> 업종 선순환매”의 경로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은 중립 이상의 요인. 가령, 전일 반도체(-3.4%)가 코스피 내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화학(+11.2%), IT가전(+10.8%), 건설(+10.5%) 등 코스피(-0.2%)의 성과를 상회한 업종이 24개에 달했기 때문(일간 수익률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 이긴 업종이 20개가 넘었던 날은 총 8거래일에 불과). 이는 앞으로도 철강, 화학, 운송 등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업종이나, 증권, 전력기기, 바이오 등 여타 주력 업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코스닥의 8%대 폭등은 그간 연쇄 급락(지난 금요일 기준 고점대비 -30%대)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이 일차적인 토대였던 것으로 판단. 주 중반에 예정된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해당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V자 급반등의 트리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최근 코스닥 부진은 팬데믹(20년), 2차전지 테마 소멸(23년) 등 대형 충격이 아닌 코스피로의 수급 이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에, 여전히 낙폭 과대 인식 관점은 유효할 전망이다(29일 기준, YTD 코스피 +99.2% vs 코스닥 -0.8%). 외국 인들도 코스피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44.5조원 순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1.8조원 순매수를 하는 등 수급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따라서, 이번 코스닥의 반등장을 “반등 시 매도를 통한 손실 축소”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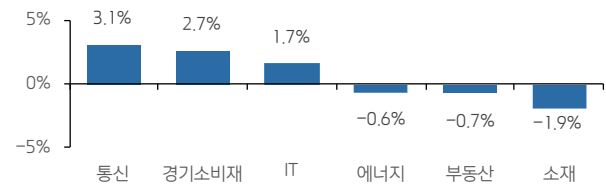
동시에 주도주인 반도체 비중을 중립 이하로 가져가는 것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볼 시점. 현재 반도체 주들은 외부 노이즈 속 차익실현 압력을 받고 있지만, 6월 한국 수출(1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7일) 등 주가 모멘텀을 재차 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 주중 순환매 장세가 출현하더라도, 포트 내 반도체 비중은 6월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 평균 수준(50%대 후반)을 유지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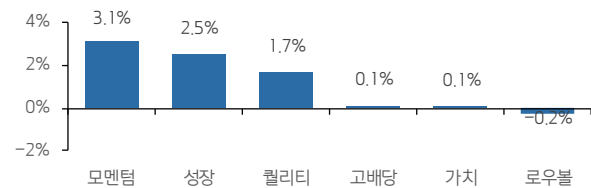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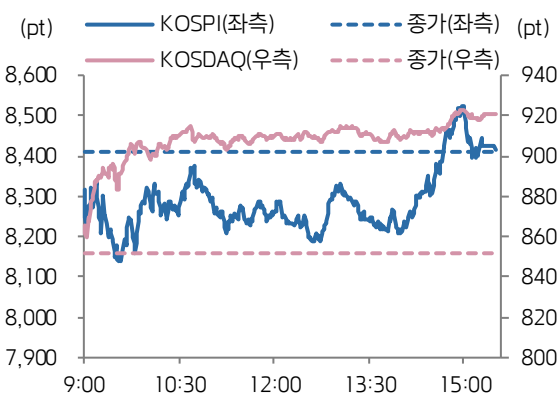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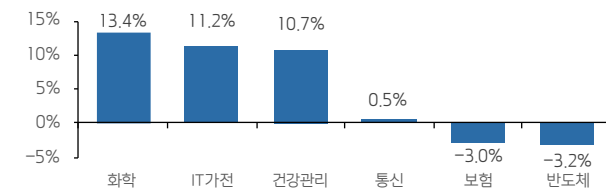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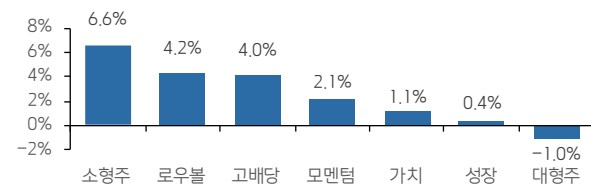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81.74	-0.72%	+3.63%	GM	77.34	-0.97%	-4.89%
마이크로소프트	368.57	-1.18%	-23.79%	일라이릴리	1,229.93	+1.81%	+14.45%
알파벳	353.65	+4.82%	+12.99%	월마트	114.60	-0.94%	+2.86%
메타	562.60	+2.24%	-14.77%	JP모건	329.39	+0.1%	+2.23%
아마존	240.14	+3.2%	+4.04%	엑손모빌	136.06	-0.35%	+13.06%
테슬라	411.84	+8.46%	-8.42%	세브론	168.47	-1.51%	+10.54%
엔비디아	194.97	+1.27%	+4.54%	제너럴일렉트릭	114.60	-0.9%	+2.9%
브로드컴	372.45	+2.04%	+7.61%	캐터필러	1,033.19	+3.58%	+80.35%
AMD	539.49	+3.43%	+151.91%	보잉	214.69	-1.18%	-1.12%
마이크론	1,145.28	+1.14%	+301.28%	넥스트에라	88.66	+0.1%	+1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394.65	-0.2%	+99.2%	USD/KRW	1,543.00	+0.47%	+7.19%	
코스피200	1,352.54	-1.02%	+123.2%	달러 지수	101.11	-0.25%	+2.83%	
코스닥	920.57	+8.13%	-0.53%	EUR/USD	1.14	+0.33%	-2.76%	
코스닥150	1,673.11	+8.59%	+8.13%	USD/CNH	6.80	-0.06%	-2.51%	
S&P500	7,440.43	+1.18%	+8.69%	USD/JPY	161.94	+0.12%	+3.34%	
NASDAQ	25,820.14	+2.07%	+11.0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182.74	+0.59%	+8.57%	국고채 3년	3.735	+1.9bp	+78.4bp	
VIX	17.65	-4.13%	+18.06%	국고채 10년	4.140	+2.3bp	+75.5bp	
러셀2000	3,010.42	+0.01%	+21.29%	미국 국채 2년	4.105	+1.2bp	+63.2bp	
필라. 반도체	13,709.66	+3.83%	+93.55%	미국 국채 10년	4.374	+0.6bp	+20.7bp	
다우 운송	21,924.99	+0.45%	+26.32%	미국 국채 30년	4.863	-0.1bp	+1.9bp	
상해종합	4,073.90	+1.16%	+2.65%	독일 국채 10년	2.857	+0.6bp	+0.2bp	
항생 H	7,605.34	+1.94%	-14.68%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728.37	-0.48%	-9.96%	WTI	70.75	+2.2%	+24.0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3.15	+1.61%	+20.21%
Eurostoxx50	6,231.63	+0.16%	+7.6%	금	4,038.90	-1.4%	-9.04%	
MSCI 전세계 지수	1,112.05	+0.86%	+9.6%	은	58.18	-1.77%	-17.6%	
MSCI DM 지수	4,744.35	-0.2%	+7.09%	구리	609.75	-0.76%	+7.31%	
MSCI EM 지수	1,706.40	-2.83%	+21.51%	BDI	2,524.00	-2.59%	+34.47%	
MSCI 한국 ETF	197.50	+0.11%	+103.15%	옥수수	430.00	-2.6%	-6.6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9.75	-1.7%	+6.23%
비트코인	60,214.46	+1.08%	-31.3%	대두	1,139.00	-1.49%	+7%	
이더리움	1,615.58	+2.83%	-45.74%	커피	277.80	+1.68%	-13.2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